

삼성전자 유해물질 안전대책 촉구 집회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2월18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시민환경연구소 조사결과 사고지점 반경 2km 안에 기준치를 넘는 불소가 검출됐다”며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성의 유해물질이 담겨서 시민에게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연간 40만톤의 유해화학물질 내역을 공개하고, 위기대응 매뉴얼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8>